

12. 나마하게관: 해설, 탈에 대하여

이곳에 전시된 탈의 거의 대부분은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된 것으로, 그중 30 개는 지금도 설날 그믐날의 나마하게 행사에서 착용합니다. 이 중에는 200 년 이상 된 탈도 있으며, 각 탈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무나 나무껍질, 종이 점토, 합판, 양철,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각 마을 주민은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나마하게 탈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변의 자연환경에 따라 만들새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탈 머리카락은 말총이나 삼베 섬유가 사용되었지만, 바닷가 마을에서는 종종 해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밧줄이나 사람의 머리카락을 사용하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나마하게라고 하면 아키타현의 기념품 가게에서 판매하는 섬세한 조각과 도장으로 만든 목제 탈과 연관 짓는 일이 있지만, 그것은 원래 관광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전통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마을에서는 실제 나마하게 행사 시에 나마하게가 집을 드나들면서 탈이 부서지기 쉽고 문틀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위험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탈 대신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진 탈을 사용하는 마을도 있습니다.